

여성을 점 계 하 는 법

지나치지 않은 自慰와 夢精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여성은 자극후 5~15분 걸려야 흥분. 여성을 이해하는 남성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갱년기 지나도 정상적인 성생활은 가능하다는데...



월급쟁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생활전선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건강과 활동의 조화를 위해 이들이 성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는 신체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하고 성적으로도 성숙하여 있으나 직장일에는 미숙하고 경제적으로도 약한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 남녀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남자는 성기의 작음을 호소하고 여자는 살이 찐 것을 호소한다.

특히 이들 건강한 남녀는 자기의 성기를 자기가 자극하여 성감각을

느끼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자위행위가 성기를 기형으로 만들어 기능을 나쁘게 한다는 미신에 젖게 된다.

남자는 불알(睪丸)에서 만들어진 정자(精子)를 정낭에 담아 있다. 가전립선(前立腺)을 중만시켜 이것이 성기를 지배하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정자를 방출하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게 자위행위나 몽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성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위나 몽정(夢精)이 지나치면 성적자극을 강하게 받는 것이 되어 생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분이 나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게 된다. 여자도 강한 성적 감정을 가지게 되면 몽정을 하는 수가 있다.

여자 인생도 40부터

남녀는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방법이 다르다. 성적욕망은 성호르몬이 충실해지면 높아지는데 뇌에 있는 성욕중추와 합동하여 작용한다. 성

호르몬과 성욕중추의 작용비율은 4 대 6 정도이다.

남녀는 모두 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나 성욕에 관계가 있는 남성호르몬은 남자쪽이 많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에는 적극적이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호르몬은 남자는 18~19세에 최성기에 이르고 40세에서 점점 떨어져간다. 여자는 이와달리 20대 후반에서 30대중반에 걸쳐 성애가 강해지고 40대에 이르러 원숙해 지는데 갱년기를 지나도 10년간은 점점 원숙해진다.

그러므로 갱년기에 이르러 월경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여자로서는 불장을 다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난자를 배출하여 수태할 능력은 없어지지만 남성호르몬은 도리어 많아지는 것이므로 여자들도 월경정지를 가지고 여자로서 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생은 40부터라고 생각하여 뇌의 성욕중추를 크게 활동시키면 젊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애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이밖에 남녀는 성애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다. 남자는 20대후반에 최성기이나 여자는 30~40대에 걸쳐 최성기가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10년이상 차이가 지면 남녀의 최성기가 반대로 되어 애정이 없으면 불화에 이르고 만다.

성애(性愛)는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애정과 얽혀 굳어

지는 것이므로 한걸음 한걸음 젊을 때 부터 노력하여 육체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대초기는 정신적인 면에서 성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기의 신경지배도 어린애 정도다.

이것은 성감을 일으키는 곳이 외음부의 음핵에 한정되어 있고 또 성인처럼 질(腔)입구가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데서 여자는 결혼생활을 해도 처음부터 성적흥분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고 6개월, 1년 또는 5년이나 10년이 걸리는 수가 있다.

또 남자가 성적으로 무지한 때문에 성행위를 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는 자극을 받아 흥분을 하게 될때까지는 5분내지 15분이 걸린다.

그러나 남자는 보고 들으면 쉽게 흥분하므로 성적자극을 받아들이기 쉽다. 여자도 손으로 만지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면 남자처럼 곧 흥분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여자는 집중력이 적으므로 빛이나 소리, 걱정등이 있으면 흥분이 죽어버리므로 조용하고 어두운 곳을 자연 좋아 한다.

● 기생충 박멸표어

새마을 건설은 기생충구제부터

한국기생충박멸협회
